포항 살핀 이재명 "재난지역선포·지원금 상향 추진"

진흙으로 뒤덮인 동네…주민들 망연자실
李, 주민들 만나 "죄송하다"며 지원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포항 대송면을 찾았다.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안호영 수석대변인,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성만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대송면복지회관 앞은 태풍이 쓸고 남긴 진흙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침수됐던 차량들 사이에 꺾인 나뭇가지가 널부러져 있고, 전봇대는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었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해병대 80여명은 복구작업에 한창이었고,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5~6명은 흙에 젖은 옷차림으로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이며 도로에 앉아있었다. 복지회관 앞에는 노인 10여명이 짐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고, 복지회관 직원들은 컵라면, 컵밥 등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들을 나르고 있었다.

침울한 현장을 깬 목소리는 지역 주민의 고성이었다.

한 백발의 장년 남성은 "물도 없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제대로 해라"라고 했고 한 여성은 "집 천장까지 물이 찼다. 이게 말이 되나. 비만 오면 이러는데 어떻게 사나. 윤석열 뭐하냐. 카메라 뭐냐, 이거 뭐하러 찍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점퍼 차림에 장화를 신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 대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오다보니 하상 높이랑 주거지역 높이가 비슷하다. 구조적으로 수재에 취약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상태에선 배수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하상 높이와 주거지역 높이가 바뀐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에서 응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히 선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재난 지원금도 당연히 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제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지원법 보상 대상이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상가랑 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해 개정작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도 200만원인데 이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올리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도 지방행정 해본 입장에서,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로 접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너무 많이 아낀다.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재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서 근본적 제도 변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현장과 주민을 살피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동 중 지역 주민을 만나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응원했다. 한 관계자가 이재명 당 대표라고 소개하자 툭툭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피해주민 일부가 머물고 있는 복지회관에 들어섰다가 피해 주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쉬고 계시니 나가서 하자"며 피해주민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행들을 이끌었다.

피해주택을 살피면서 만난 해병대원을 향해서는 "고생 많다. 감사하다"며 "국방도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피해주택을 정리하고 있는 이재민을 만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협력하라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동 중 하수구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천 높이는 정상화 됐는데 이곳에 물이 차있는 건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거나 용량이 작거나 한 것 아니냐"며 "이 상태로 비가 오면 다시 찬다. 빨리 확인해서 정상가동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섯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지역 수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수해가 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지원하게 돼 있다. 현행법에는 수해가 나도 침수피해가 나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다. 법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현재 주택만 보상하게 돼있는데 상가나 소기업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금액 대상을 넓히도록 조속히 정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 지역이 구조적으로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배수펌프장을 신속히 보완해 긴급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尹대통령 "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현장서 사투 벌인 관계자 덕분에 피해 줄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와 관련,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힌남노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주신 언론,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해경·경찰·군인·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 줄일 수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은 한 발 앞선 대처가 중요하므로 저 역시 여러 차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상황 점검을 했다"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환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정청래 "尹, 아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김건희 수사 안 해…특검 가는 상황 자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주가조작, 허위경력 부풀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모든 학위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못하나"라며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굳이 특검으로 가지 않아도 갈 일을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초했는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전날 한국 사립대학교 교수 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해 발표했다"며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복사학위 수준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멤버 유지'라는 학술논문도 국민들의 웃음거리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선옥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